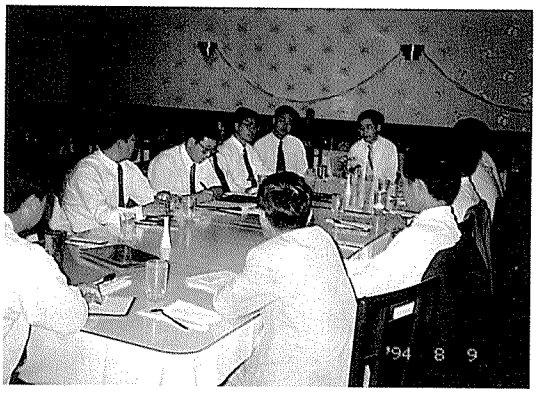
EIAK소식

한 · 미 컴퓨터 산업 기술 협력 포럼 개최

본회는 지난 8월 11일, 12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전자협회(AEA)와 제1차 한·미 컴퓨터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컴퓨터 산업 분야에서 정보교환, 인력교환 등 협조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등 업계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AEA 회장을 비롯 IBM, AT&T, EDS 등 미국업계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미 양국은 민간협회 차원에서 S/W와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컴퓨터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한·미 양국은 컴퓨터 및 통신산업 분야에서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 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조치가 전자산업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



을 같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미국 S/W 업체들에 한국의 연수생을 보내는 방법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 현지 구매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아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 협력단은 실리콘 밸리에 있는 한국업체 관계자와 별도의 간담회를 갖는 등 현지 활동의 애로사항과 현지에 진출한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의 활동상황 등을 살펴 보기도 했다.

전기통신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

본회의 통신기기제조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산업협의회는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 법률(안)이 전기통신 설비제조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의 개선을 통한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동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의 기간통신사업 참여 지분이, 외국인(3분의 1)보다도 훨씬 불리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서둘러 확보해야 할 전화사업에 대해서 대주주에 대한 지분제한을 1/10로 제한하고 있음은 크게 잘못된 일로서, 이는 통신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경쟁력을 키워야할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통신사업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97년 통신시장의 완전개방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율경쟁 체제 속에 조속한 민영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아울러 민간이 자유로이 설립을 결정해야 할, 민간단체도 기존의 협회와 사업영역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협회를 정부가 특별법으로 법제화하여 정부 예산지원과 업체의 출연금으로 설립하려는 데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업계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새정부 출범 이후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이번의 법률개정 의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정부 관련 부처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안으로 대두된 시점에서, 관련업계의 의사에 반하는 법규 개정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통신업계가 채택한 대정부 건의 내용이다.

기간 통신사업자의 지분제한에 대한 건의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건 의 사 항
대주주	일반통신사업 10% 특정통신사업 1/3	1/3 (전화사업자는 10%)	1/3(전화사업자에 대한 차별 조항 철폐
설비제조업자	일반통신사업 3% 특정통신사업 10%	10% (전화사업자는 3%)	조항자체를 철폐
외국법인	일반통신사업금지 특정통신사업 10%	1/3 (전화사업은 금지)	–
정부투자기관	10%	10%	–

※ 개정(안)은 일반과 특정통신사업의 구분을 없애는 대신 전화사업자에 대한 제한조항을 둠으로써 사실상 동일한 결과임.

제25회 한국전자전 세부운영계획 확정

본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KOEX에서 개최되는 제25회 한국전자전람회 세부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국내 최대 전자·정보관련 전시회인 한국전자전은 KOEX 1, 3층에서 국내업체 300개사와 외국업체 120개사 등 총 18개국 429개사가 참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히 이번 전람회는 기존 가전 3사 외에 멀티미디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현대전자가 신규로 참가하며 컴퓨터, 통신 등 산업용 제품업체와 부품업체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바이어의 참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미주지역 500명, 인도와 중국 통상사절단 300명, 러시아 및 동구권 100명 등이 참관을 신청해 왔으며 개별 방문 신청도 7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본회는 효율적인 관람을 위해 전체 전시장을 음향기기·가정용제품관, 산업용제품관, 부품·소재관 및 외국관으로 구분하고 계측기기, PC기판 등 품목별, 공동관을 구성하

여 전시키로 했다.

또한 전시기간 중에 한·중 HDTV 공동개발을 위한 워크샵, 전자기술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 권선구 CATV 시험 방송에 가입자용 컨버터 등 제공

본회 CATV기기산업협의회는 '95년 3월에 CATV 방송개시를 앞두고 국산기기의 성능과 시스템을 점검하는 지난 8월 17일 수원 권선구 CATV시험방송에 가입자용 컨버터 등을 제작 제공했다.

시험 방송에는 삼성전자, 대한전자, 동서전자 등 방송시설업체 8개사가 참여했고 삼성전기, 태평양시스템, 나우정밀 등 7개사가 가입자용 컨버터를 제작해 제공했다.

앞으로 3개월간 실시될 이 시험방송은 90% 이상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서울 목동 시험방송과는 달리 국내 업체가 개발한 가입자 수신장치(컨버터)와 가입자 관리시스템 등 국산기기가 사용되고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5개 전문채널과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전송망 사업자가 참여해 명실상부하게 한국형 CATV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주목 받고 있다.

CATV용 가입자 컨버터 공급관련 조찬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20일 CATV기기산업협의회는 무역클럽에서 상공자원부 박수훈 전자정책과장, 전자부품(연) 김한식 단장, 나우정밀 이용규 사장 등 14명이 참석 CATV용 가입자 컨버터 공급 관련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공자원부 박수훈 과장의 CATV 컨버터 공급 대책을 설명하고 컨버터 32만대 공급대책. 컨버터 신뢰성 시험, 기타 디스크램블 ASIC 칩, 신뢰성 문제, ASIC 칩 소요량 재조사 등을 협의했다.

국산 CATV 방송장비(방송용 카메라, VCR) 사용 추진을 위한 건의

본회의 CATV기기산업협의회는 지난 7월 29일 대정부 건의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국산 CATV 방송장비에 대한 사용 촉진을 유도, 수요자(SO, PP)에 대한 인식제고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근 국회 생중계용 방송시스템과 연합 TV 뉴스에 대한 예외 수입 허가 움직임과 관련 국산 방송장비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원사 업계의 의견을 모아 국산 장비를 사용해 줄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세탁기 특별 소비세 추가 인상(안)에 대한 건의

본회 가전산업협의회는 지난 8월 24일 세탁기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해결해 줄 보급률 90%의 대중적 생활용품으로 대만을 비롯한 어느 국가에서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동개혁(안) 중 전기세탁기보다 고가인 그랜드 피아노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고 있어 적용상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으며 세탁기에 대한 특소세의 추가 인상은 세탁기 매

출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4년 1월부터 특소세가 적용된 후 상반기까지 2,50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말까지는 5.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95년 1월부터 추가 인상된 15%가 적용된다면 시장 침체 현상을 더욱 가속화 될 것이기에 특소세율 15%를 현행 10%로 유지해 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

본회 가전산업협의회는 지난 8월 2일 동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공자원부에 건의했다. 소형 가전제품 포장재를 전면 사용 금지하고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운송·하역에 따른 제품 파손 및 불량률 급증,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들어 대체 포장재에 대한 충분한 환경영향 및 재활용 평가도 거치지 않은 기존 포장재에 대한 회수 재활용 노력도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가전산업협의회

지 난 8월 9일 동협의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가전제품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무자료 거래 근절 등 유통질서 정상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전제품 공정거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가전산업협의회 내에 구성키로 하고 무자료 근절 등 가전제품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추진사업을 홍보키로 했다.

또한 판매사원, 대리점 교육 실시, 정상거래 저해 요인 및 업계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 협의회는 지난 8월 5일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 제조물 책임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원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에 대해 업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지 난 8월 9일 동협의회는 폐가전품 위탁처리 사업에 따른 회의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표준계약서 내용 재검토, 폐기물 예치금 제도 관련 용역 사업 추진 여부를 협의 했다.

가 전산업협의회는 지난 8월 17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한·중 HDTV 공동개발을 위한 워크샵 추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과제 및 추진 방향에 관해 협의 했다.

CATV기기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지난 8월 20일 무역클럽에서 나우정밀 이용규 사장 등 11명이 참석, CATV용 가입자 컨버터 공급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컨버터 공급대책, 컨버터 신뢰성 시험 등과 관련 협의 했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지난 8월 8일 본회 회의실에서 전자부품등록센타(ECRC/EIAK) 설립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CRC/EIAK의 등록업무 개시를 위한 추진일정과 음극선관(CRT)용 유리의 EIAK 규격 제정에 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부품 등록 센타 설립 추진시 기존의 음극선관 생산업체와 음극선관용 유리 관련 업체를 참여토록 유도, 유리 규격류의 EIAK 표준 제정에 따른 일정을 협의 했다.

지난 8월 17일, 19일 2박3일 동안 동협의회는 음극선관용 유리의 EIAK 규격 제정을 위한 워크샵을 용인프라자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은 동규격 제정에 따른 형명, 특성규격, 유효치수, 검사규격 등 기제정된 ECRC/EIAK 규격류에 관한 재검토가 있었다.

지난 8월 26일 27일 양일간 동협의회는 삼성전관 부산공장에서 음극선관용(CRT) 형명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극선관용 기술표준화위원회(TESC)는 동표준화를 확정지었다.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주)한 국 케 미 칼

대　　표 : 박　정　오
주　　소 : 경남 김해군 장유면 부곡리 720-1
전 화 번 호 : 0525) 38－4111/4
자　본　금 : 3억 1,000만원
설 립 일 자 : 1987. 6. 1
종 업 원 수 : 52명
주생산품목 : 전자렌지 도어 필름 점착 Tape, 필라멘트 Tape, 브라운관 보강 점착 Tape, 산업기계 Plant 수출

에 스 프 라 정 공 (주)

대　　표 : 박　영　조
주　　소 : 경기 화성군 태안읍 신리 478-8
전 화 번 호 : 0331) 211－8503
자　본　금 : 4억 5,000만원
설 립 일 자 : 1989. 5. 26
종 업 원 수 : 47명
주생산품목 : VTR용 자기 헤드, VTR용 정밀 EU-PCA 성형 금형 등